

# 제주 세계지질공원 1주년 평가와 지속가능한 발전방안 연구

제주대학교 대학원 지리교육전공 박사과정 김범훈

제주도는 특별자치도로 출범하면서 자연공원법과 문화재보호법 등을 비롯해 제주도특별법, 제주도 환경보전관리계획, 중산간 관리보전지역 조례, 공유수면관리법, 한라산국립공원관리계획 등 제주도의 자연유산을 관리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강력한 보전제도를 갖추고 있다. 그러나 생활환경은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 없으면 제주 섬의 자량인 청정성을 유지할 수 없다. 따라서 주민들의 친환경적인 생활이야말로 세계지질공원만이 아니라 유네스코의 자연환경분야 3관왕이란 브랜드 가치를 한층 더 높이는 길이다

## I. 들어가며

대한민국의 보물섬, 화산 섬인 <제주 섬(Jeju Island, Republic of Korea)>이 유네스코(UNESCO) 세계지질공원(Global Geopark)<sup>1)</sup>으로 인증을 받은 지 어느덧 1주년을 맞고 있다. 지금, 세계지질공원은 과연 어떤 모습으로 비추어지고 있을까, 유명세와 인지도만큼 일반 도민들에게도 몹시 궁금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아직은 이에 대한 평가를 내리는 데 주저하지 않을 수 없다. 제주도정은 세계지질공원 인증에 이어 곧바로 지난해 12월부터 <세계 7대 자연경관>에 제주도가 선정될 수 있도록 지역사회와 함께 올인 하다시피 모든 힘을 쏟아 붓고 있기 때문이다. 오는 11월 11일 최종 결과 발표를 40여일 앞둔 지금, 해외 교민들은 물론 중앙정부와 대기업 등까지 지원에 나서고 있는 상황이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제주 세계지질공원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은 상대적으로 소홀해질 수밖에 없다. 결국 세계지질공원 인증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는 지질관광(Geotourism, 지질투어리즘) 프로그램과 이를 통한 지역주민 소득증대 방안 등은 아직 구체화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부정적인 현상만 있는 것이 아니다. 전담부서인 제주도 세계자연유산관리단은 이런 열악한 환경을 이겨내며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본다. 전문직 등 관리전담인력과 예산지원마저 태부족인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지질공원 안내판 보강, 지질공원 발전을 위한 국제 세미나 개최, 해외의 세계지질공원과의 자매결연, 2013년 아시아·태평양지질공원 총회 제주유치 성공 등 나름대로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는 점은 평가할 일이다.

그럼에도 당초 약속한 대로 관리계획이 너무 단편적인 행사 위주로만 추진되고 있는데다 제주도정의 고위직 관계자들마저 관심이 떨어지고 있는 것 같아 심히 우려된다.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은 4년마다 활동을 재평가 해 낮은 점수가 나오면 개선을 권고하고 이행치 않을 경우엔 인증이 철회된다. 세계지질공원의 관리가 어떤 면에서는 세계자연유산보다 더 엄격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세계지질공원에 대한 올바른 개념과 각국의 수범사례 등을 살펴보고, 현재 우려를 사고 있는 제주도의 인프라 실태와 추진과정 등을 점검해봄으로써 제주 세계지질공원의 지속가능한 발전방안 등을 제언해보고자 한다.

## II. 왜 세계지질공원이 대안인가

우선, 유네스코가 지원하는 세계지질공원이란 용어의 정의부터 살펴보자.

유네스코의 가이드라인 등에 따르면, 지질공원은 지구과학적으로 중요하고 아름다운

---

1) Global Geopark의 명칭 문제; 한국과 중국에서는 지질학자들을 중심으로 Geopark를 지질공원으로 공식 번역하고 있음. 이에 따라 Global Geopark는 세계지질공원으로 번역됨. 그러나 Geopark의 명칭에 대한 이론이 적지 않음. 김창환(강원대 사범대 지리교육과 교수) 등은 Geopark는 세계지리학회(GU)와 세계지질학회(UGS)의 상호협력관계로 출발한 것이고, Geopark의 활동영역이 지역의 지형, 지질을 비롯한 자연물의 보전이라는 측면을 가지고 있다는 점, 그리고 Geopark의 중요한 요소인 '지질적 형상(Geological features)'이란 표현 때문에 Geopark를 '지질공원'으로 번역해야 한다는 주장과 관련해 유네스코의 '지질학적 형상'의 가이드라인은 대표적인 암석과 노두, 광물과 광물자원, 화석, 지형과 경관을 지칭하고 있다는 점 등에서 Geopark의 명칭은 '지오파크'로 하거나 다른 명칭으로 사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Global Geopark는 '세계 지오파크'나 다른 명칭으로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질에만 편중돼 사용할 것이 아니라는 의미이다. 그러나 본 논고는 제주특별자치도가 Geopark의 명칭을 '지질공원'으로 공식화하였고, 올해 6월 국회를 통과한 자연공원법상에도 Geopark의 명칭을 '지질공원'으로 제도화함에 따른 것임을 밝힌다.

경관을 지닌 지형 및 지질현장으로 생태학적·고고학적·문화적 유산을 동시에 보전하면서 연구·교육·보급에 활용하고 여기에 지질관광을 통해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지질공원은 자연유산과 문화유산이 결합된, 보전·교육·지속가능한 발전까지 3가지 개념을 통합한 프로그램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러한 활동들이 'bottom-up' 방식으로 지역 주민들이 기획과 실행과정에 참여할 때 지속가능성을 보장할 수 있다는 점이다<sup>2)</sup>. 지역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뤄질 때 다양한 지질관광과 교육 프로그램, 특산물 개발 등을 통해 주민소득 증대는 물론 지역경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의미다.

특히 지질관광산업은 자연자원의 가치와 기능에 대한 올바른 인식의 바탕 위에 자연자원의 보존과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무공해의 지속가능한 문화산업이다<sup>3)</sup>. 게다가 지질공원은 개방형 관리를 지향한다. 핵심적인 보호대상을 제외하고는 각종 규제로 인한 행위제한이 거의 없다는 것 또한 특징이다.

이렇듯 활동주체가 지역과 지역주민에 있다는 점, 지역의 지속적 발전을 도모하는 수단으로 지질관광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다는 점에서 지질공원은 세계자연유산 등 유네스코의 여타 환경보전제도와 확연히 다르다 하겠다. 행위제한이 엄격한 세계자연유산의 단점을 극복할 수 있다는 얘기다.

나아가 세계지질공원은 전 세계시민들로부터 공신력을 인정받고 있는 유네스코가 지원하고 있다는 점에서 해당 지역은 물론 해당 국가까지 브랜드 가치가 높아지고 경제적 파급효과까지 기대를 모은다. 세계지질공원이 21세기 자연보전과 이용을 조화시킨 새로운 대안으로 각광을 받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하겠다.

이를 입증하듯 세계지질공원 네트워크(Global Geopark Network)에는 세계 각국의 지방자치단체들로부터 인증 신청이 쇄도하고 있다.

지난해만 해도 제주도가 국내 최초로 인증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이탈리아(2개소), 스페인(1개소), 노르웨이(1개소), 중국(2개소), 일본(1개소), 베트남(1개소), 헝가리-슬로바키아(1개소), 캐나다(1개소), 핀란드(1개소) 등 11개 국가의 12개소가 세계지질공원으로 인증을 받아 GGN의 새로운 회원이 되었다.

유네스코 GGN의 회원은 2011년 10월1일 현재 세계 25개국 77개소이다(〈표〉 세계지질공원 네트워크 회원분포). 대륙별로는 유럽이 42개소가 가장 많다. 국가별로는 중국이 24개로 최다 보유국가다. 물론 세계적인 회원분포를 놓고 볼 때 유럽과 중국 등 일부 지역적 편중성을 보이고 있지만 GGN이 지난 2004년에 공식 출범한 초창기임을 감안하

2) Guy Martini, Basic concepts of Geopark & Geotourism, 2011, 제주도 세계지질공원과 국가지질공원 미래발전 국제세미나.

3) 전영권, 2010, 한국의 지오투어리즘, 한국지형학회지, 17(4), 65.

면, 수년 내로 이런 편중성이 해결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GGN 가입을 희망하는 지역은 강원 영월·평창·정선, 남해안 공룡 화석지, 울릉도 등 국내 50여개 지역을 포함해 세계적으로 500곳이 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표〉 세계지질공원 네트워크(GGN) 회원 분포

(2011. 10. 1. 기준)

국가	세계지질공원 이름	가입연도
영국(7개소)	North Pennines AONB Geopark	2004
	North West Highlands Geopark	2005
	Forest Fawr Geopark	2005
	Lochaber Geopark	2007
	English Riviera Geopark	2007
	Shetland Geopark	2009
	Geo Mon Geopark	2009
독일(5개소)	Vulkaneifel Geopark	2004
	Nature park Terra Vita	2004
	Geopark Bergstrasse—Odenwald	2004
	Geopark Harz Braunschweiger Land Ostfalen	2005
	Geopark Swabian Albs	2005
그리스(4개소)	Petrified Forest of Lesvos	2004
	Psiloritis Natural Park	2004
	Chelmos—Vouraikos Geopark	2009
	Vikos—Aaos Geopark	2009
이탈리아(7개소)	Madonie Natural Park	2004
	Parco del Beigua	2005
	Geological and Mining Park of Sardinia	2007
	Rocca Di Cerere Geopark	2008
	Adamello Brenta Geopark	2008

국가	세계지질공원 이름	가입연도
이탈리아(7개소)	Parco Nazionale del Cilento e Vallo di Diano	2010
	Tuscan Mining Park	2010
아일랜드(1개소)	Copper Coast Geopark	2004
북아일랜드(1개소)	Marble Arch Caves & Cuilcagh Mountain Park	2004
오스트리아(1개소)	Nature Park Eisenwurzen	2004
프랑스(2개소)	Park Naturel Régional du Luberon	2005
	Reserve Géologique de Haute Provence	2009
스페인(5개소)	Maestrazgo Cultural Park	2005
	Cabo de Gata Natural Park	2006
	Sobrarbe Geopark	2006
	Subeticas Geopark	2006
	Basque Coast Geopark	2010
루마니아(1개소)	Hateg Country Dinosaur Geopark	2005
체코(1개소)	Bohemian Paradise Geopark	2005
포르투갈(2개소)	Naturtejo Geopark	2006
	Arouca Geopark	2009
노르웨이(2개소)	Gea-Norvegica Geopark	2006
	Magma Geopark	2010
브라질(1개소)	Araripe Geopark	2006
크로아티아(1개소)	Papuk Geopark	2007
중국(24개소)	Danxiashan Geopark	2004
	Huangshan Geopark	2004
	Lushan Geopark	2004
	Shillin Geopark(Stone Forest Geopark)	2004
	Songshan Geopark	2004

국가	세계지질공원 이름	가입연도
중국(24개소)	Wudalianchi Geopark	2004
	Yuntaishan Geopark	2004
	Zhangjajie Sandstone Peak Forest Geopark	2004
	Hexigten Geopark	2005
	Taining Geopark	2005
	Xingwen Geopark	2005
	Yandangshan Geopark	2005
	Fangshan Geopark	2006
	Funiushan Geopark	2006
	Jingpohu Geopark	2006
	Leiqiong Geopark	2006
	Taishan Geopark	2006
	Wangwushan-Daimeishan Geopark	2006
	Longhushan Geopark	2008
	Zigong Geopark	2008
	Alxa Desert Geopark	2009
	Qinling Geopark	2009
	Leye-Fengshan Geopark	2010
	Ningde Geopark	2010
이란(1개소)	Qeshm Geopark	2006
말레이시아(1개소)	Langkawi Geopark	2007
호주(1개소)	Kanawinka Geopark	2008
일본(4개소)	Toya Caldera and Usu Volcano Geopark	2009
	Itoigawa Geopark	2009
	Unzen Volcanic Geopark	2009

국가	세계지질공원 이름	가입연도
일본(4개소)	San'in Kaigan Geopark	2010
한국(1개소)	Jeju Island Geopark	2010
베트남(1개소)	Dong Van Karst Plateau Geopark	2010
헝가리-슬로바키아 (1개소)	Novohrad-Nograd Geopark	2010
캐나다(1개소)	Stonehammer Geopark	2010
핀란드(1개소)	Rokua Geopark	2010

자료: : 2010년 10월에 가입한 세계지질공원을 지칭한 것임

### III. 제주 세계지질공원 인증 1년 평가

#### 1. 제주특별자치도 차원

앞서 서론부문에서도 언급하였지만, 제주 세계지질공원 인증 1주년을 맞이한 시점에서 그 성과를 평가하는 것은 너무 선부른 감이 없지 않다. 제주도정이 지난 2009년 1월 유네스코 GGN 가입을 신청할 당시 약속한 관리계획과 미래 실행계획은 단 시일 내에 끝낼 수 있는 사안들이 아니다. 연차적으로 인내를 갖고 꾸준히 추진해야할 과제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 시점에서 굳이 1주년 성과를 거론하는 이유는 벌써 우려되는 바가 한 두 가지가 아니기 때문이다.

가장 큰 문제는 세계지질공원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너무 기대이하라는 점이다. 지난 2007년부터 장장 5년여에 걸쳐 세계지질공원 인증을 위해 팔방으로 뛰었던 열의와 정성이 언제 그랬냐는 듯 시들해지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이런 현상은 제주도정의 고위직부터 단연 두드러진다. 물론 스위스의 비영리재단 뉴세븐원더스가 주관하는 국제적 이벤트인 <세계 7대 자연경관> 도전이 '제주와 대한민국 브랜드 천년의 글로벌화를 위한 단 한번 뿐인 기회'라는 점에서 제주도정이 올인 해야 하는 것은 절체절명의 과제이기도 하다. 제주도가 오는 11월 11일 <세계 7대 자연경관>의 반열에 오르는 순간, 제주도의 브랜드 가치가 급격히 상승할 것이고 이에 따른 해외 관광객 급증 등 경제적 효과부터 엄청날 것이라는 분석들도 나오고 있기에 더욱 그러할 것이다.

그러나 정책이라는 것은 무 자르듯이 끝낼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정책 입안 당시의 초

심을 잃지 않고 관심과 지원을 계속할 때 그 정책은 빛을 발하게 되고 주민들의 지지를 얻어낼 수 있다. 그럼에도 제주도정의 고위직들은 인증 후의 추진과제는 뒷전이고 겉으로 생색을 내는 이벤트성 행사 위주에 치중하고 있어 걱정이다.

다만, 제주도정이 그동안 생물권보전지역, 세계자연유산, 세계지질공원으로 3분화 되었던 것을 관리조직의 효율성 차원에서 제주도 세계자연유산관리단으로 일원화한 것은 의미 있는 일로 평가한다. 이를 통해 통합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 생물권보전지역·세계자연유산 및 세계지질공원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입법 예고되어 있고, 통합홍보(안내판 정비, 관람로 추가설치, 홍보책자 발간 등) 추진, 월 2회 대표명소에 대한 모니터링 실시, 안내사 및 해설사에 대한 교육, 지질명소 트레킹 프로젝트 기획 등을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추진 계획이 아무리 훌륭한 들 제주도정의 의지가 없으면 한낱 종이장에 불과할 뿐이다. 이럴 경우 앞으로 2019년까지 대표명소 13개소 추가 지정 추진은 언감생심일 것이다.

## 2. 중앙정부 차원

국비 지원과 법적·제도적 지원책 마련이 관건이나 너무 기대이하다. 엄연히 국가 법률로 규정된 지원마저 묵살하는 중앙정부이고 보면 무늬만 제주특별법으로 전략시키는 정부도 문제이지만, 대(對) 중앙절충에 한계를 드러내고 있는 제주도정 역시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이런 가운데 국회가 지난 6월 지질공원을 새롭게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한 자연공원법을 개정하는 것은 의미가 크다. 국가차원에서 지질공원의 체계적인 지원·관리 시스템 구축을 명문화하고 지질자원의 효과적인 보호와 활용을 통하여 지질유산의 보존 및 지역경제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개정 자연공원법도 일부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지질공원에 대한 지원에 있어, 그 핵심적 부분인 지질관광과 지역주민의 네트워크 연계 등에 대한 지원 프로그램이 명시되어 있지 않고, 지역주민들 위한 예산지원도 규정돼 있지 않다는 점 등을 들 수 있다. 속히 개정되어야 할 사안들이다.

## IV. 해외 세계지질공원 사례들

### 1. 영국의 세계지질공원

영국은 세계적으로 지형·지질유산의 보전과 활용방안을 가장 잘 인식하고 있는 나라



가운데 하나로 꼽힌다. 강력한 법과 제도적 체계를 갖추고 이를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관리하고 있어 여러 나라의 모범이 될 만하다. 이 가운데 〈Site of Special Scientific Interest(SSSI·과학적 특별흥미 장소)〉, 〈Geological Conservation Review site(GCRs·지질 보전 장소)〉, 〈Regionally Important Geological site(RIGs·지역적 중요한 지질 장소)〉 등의 정보망 구축은 지질유산과 관련한 관리제도로써 학술적으로도 주목을 받고 있다<sup>4)</sup>.

현재 영국에는 총 7개의 세계지질공원이 있다. 이들의 특징은 각각의 지형·지질 특색에 맞는 안내소 설치와 전문 안내인을 배치하고 있다는 점이다. 안내소는 규모가 크지 않지만 주요 지질의 생성과정, 지역산업 활동과의 관련성, 생물의 서식처 등의 정보를 제공한다. 특히 각 연령대와 취향에 맞춘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관광객들을 끌어 모으고 있다. 유아 및 초중등 학생 그룹, 청소년 그룹, 대학생그룹, 성인그룹, 단체 관광객 그룹, 노인그룹, 전문가 그룹 등으로 나눠 가이드 동행 도보투어, 고고학 투어 등을 실시하는 것이 그러한 사례다. 지질유산을 활용한 스토리텔링과 어린이들을 위한 지질 클럽도 인기가 있다. 또한 지역주민은 물론 국내외 관광객들이 대중교통, 자전거, 도보 등을 이용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한 것도 강점이다.

## 2. 독일의 세계지질공원

독일에는 모두 5개소의 세계지질공원이 있다. 이들 가운데 유럽 최초로 2000년 유럽 지질공원 네트워크(EGN) 회원으로 가입한데 이어 처음으로 2004년 세계지질공원 반열에 오른 〈불칸아이펠 지질공원(Vulkaneifel Geopark)〉이 대표적이다.

이 공원은 수천 만 년 전에서부터 최후 빙하기인 1만 년 전의 지구역사를 간직하고 있는 세계적 화산지대로 유명하다. 350여 개의 각종 화산체가 제주도의 오름들을 연상케 하고 서귀포시 하논 분화구를 그대로 옮겨다놓은 듯한 70여개의 마르형 분화구가 장관을 이룬다.

이 공원의 화산·마르·광물질·자연사·화석·암석 등 6개 주제별 박물관은 비록 소규모이지만 운영 프로그램 등 콘텐츠가 알찬 것으로 평가를 받고 있다.

게다가 지질공원 권역 내에 있는 관광안내소들은 방문객센터의 역할을 담당하면서 지역주민들이 생산 제작한 지역 특산품과 기념품을 판매하는 매장도 겸하고 있다. 교사연수 프로그램과 어린이 대상 교육프로그램이 활발하게 이뤄지는 있는 점도 주목할 사항이다. 주로 화산활동과 그에 따른 지형특성 등을 집중 다루면서 역사문화 체험과 고품격의 생태투어도 병행하고 있어서다.

4) 이수재 외, 2008, 한국의 지질유산 정보구축과 관리방안,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88-95

특히 이 공원은 기간·테마·대상자별로 세분화된 관광코스를 개발하여 관광객들의 취향을 충족시켜주고 있다. 여기에 약 2000년 전 로마제국시대에 조성된 180km에 이르는 도로를 트레킹 코스화 하여 역사성을 부여함으로써 독일의 10대 하이킹코스로 선정되는 영예도 누리고 있다. 이 밖에 채석장에서 드러난 퇴적층을 지층관찰지로 활용하는가 하면 이 곳에서 음악회까지 개최함으로써 지질특성과의 친밀감을 갖도록 한다는 점도 이색적이다.

### 3. 말레이시아의 세계지질공원<sup>5)</sup>

랑카위 세계지질공원(Langkawi Geopark)은 2007년 말레이시아 최초로 세계지질공원으로 인증 받았다. 유네스코 산하의 세계지질공원 네트워크에 가입된 기론 동남아시아 최초이기도 하다.

말레이시아 반도의 북서쪽 끝단에 위치, 99개의 섬으로 이뤄진 곳으로 제주도 처럼 섬 전체(478km<sup>2</sup>)가 세계지질공원이다.

랑카위 세계지질공원의 특징은 각 대표명소마다 하나의 랜드마크가 존재한다는 점이다. 방문객의 편의를 고려한 관광케이블카와 고공다리, 해안절벽에 세워져 카르스트 지형·지질의 현장체험을 돕는 대형 입간판, 산정호수에 깃든 민간 전설을 토대로 레크리에이션과 수영장 등으로까지 활용하는 돌리네 형성 담수호수 등이 그 것이다.

특히 주목해야할 사실은 랑카위 개발공사와 세계지질공원 지역 농어민들이 파트너십을 체결하여 주민소득 증대사업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지방정부는 브랜드 가치 하락을 막기 위해 이들 상품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 주민들이 자체 생산하고 개발한 전통적인 지역특산품에다 랑카위 지질공원이란 상표를 붙여 판매함으로써 자연유산·문화유산 보존과 관광의 극대화를 이루고 있는 것이다. 이를 통해 지역주민들은 랑카위 세계지질공원 활동에 참여하고 있다는 자부심과 함께 참여의식을 높여나가고 있다.

랑카위는 7년에 걸쳐 차분하게 준비기간을 갖고 세계지질공원으로 인증을 받았다. 이들은 지금에 만족하지 않고 지역사회의 다양한 계층과 분야가 친환경적인 참여의 폭을 확대해나가는 방안을 놓고 미래지향적인 고민을 하고 있다.

이의 일환으로 해외의 세계지질공원과 자매결연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어 국가적으로 수범사례로 꼽힐 정도다. 일례로 양 지역의 청소년 학생들로 하여금 교환 방문 교육프로그램을 실시함으로써 교육의 질을 세계화하고 있다는 평가다.

5) 제주도 세계지질공원관리계획 보고서, 2010, 81-92.

#### 4. 일본의 세계지질공원

비록 중국보다 5년 늦게 세계지질공원 네트워크 회원이 됐지만, 그 훨씬 이전부터 지질공원의 보존관리와 학술적 연구 활동, 국제교류, 지속가능한 발전 등 유럽 국가들 못지않게 선진화된 프로그램을 가동해 왔다. 일찍부터 중앙정부 차원에서 <일본지질공원위원회>를 두고 전국에 16개소의 국가지질공원을 지정하는 등 <일본지질공원네트워크>를 구축해왔다. 이로 인해 각 지방자치단체간 지질공원망이 결성되고 중앙과 지방정부의 지원활동도 활발히 이뤄지며 지질박물관도 본격 운영되면서 선진화 시스템을 갖추었던 것이다.

2009년 첫 회원이던 세계지질공원 3개소 가운데 니가타현(新潟縣)의 <이토이가와 지질공원(Itoigawa Geopark)>은 그러한 시스템을 대표하는 지역이다. 이토이가와는 일본 열도의 본토인 혼슈 중앙부를 남북으로 종단하는 화산지대 <포사마그나(Fossa Magna, 동북 일본과 서남 일본의 경계 부근에 해당되는 화산지대로 중앙지구대라고도 함)>로 유명한 곳이다. 일본열도 중앙부의 심해저 지층을 대표하는 지질공간으로서 화산섬 일본 열도를 상징하는 곳이다. 그동안 이토이가와시는 특산 자원인 비취와 여러 화석 등 지역의 다양한 지질자원을 활용한 도시 만들기 구상을 통해 Fossa Magna 박물관을 설립하였다<sup>6)</sup>. 여기에 홈페이지 운영, 인문과 자연요소까지 포함한 일반 및 전문자료 발간 등을 통해 지질자원을 활용한 친환경 교육보급 활동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특히 박물관에는 시민회원들이 친목모임을 결성해 야외견학을 실시함으로써 세계지질공원 실사에서 높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진다.

#### 5. 외국의 지질유산 관리사례의 특징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의 이수재 박사 등은 2008년 연구보고서 <한국의 지질유산 정보구축과 관리방안>을 통해 국외의 지질유산 관리운영의 특징을 다음과 같이 요약하였다.

- 첫째, 관련 법·제도를 구체적으로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다.
- 둘째, 철저하게 지질학적 특징을 중시한다.
- 셋째, 보호범위를 명확히 설정한다.
- 넷째, 보호주체를 명시하여 상시 관리가 가능하도록 한다.

6) 김창환, 2011, Geopark의 명칭에 대한 논의, 한국지형학회지, 18(1), 75.

- 다섯째, 지리정보시스템을 이용한 정보구축이 체계화되어 있다.
- 여섯째, 관련 정보를 출판하고 담당부서를 운영하며 전문 인력을 배치한다.
- 일곱째, 관리계획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다.
- 여덟째, 관련 학술활동, 관련 당사자의 정보교환 등이 매우 활발하다.
- 아홉째, 관광산업과 연관돼 지역경제 개발과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고 있어 지역 주민의 환영을 받고 있다.

## V. 정책적 제언

제주도에는 섬 전체를 환경 친화적으로 개발하여 지질관광을 실시할 수 있는 여러 여건들이 잘 갖추어져 있다. 여기에는 교육관광에 초점을 맞춘 가이드 관광을 포함하여 도보, 자전거 또는 자동차로 제주도의 지질유산과 문화유적지를 스스로 탐방하는 것 등도 포함한다. 게다가 제주도는 국내 제1의 관광지이자 국제적 휴양 관광지로서 천혜의 수려하고 독특하며 다양한 지형 및 지질경관을 자랑한다.

그러나 이 정도로 만족해서는 지속가능한 선진 시스템의 지질관광을 결코 압도할 수 없다고 본다. 현 상태의 인프라 또한 통합기능을 발휘하지 못한 채 제각각일 뿐이고 지역주민들과의 괴리는 갈수록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해결책은 어디에 있을까. 결코 먼 데 있지도 않고, 많은 예산 들여가며 해외 전문가들한테서도 찾을 필요가 없다. 해결책은 바로 우리 곁에 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우리 스스로 현재의 발상을 살짝 전환하는 데서 시작하면 될 터이다. 그 발상은 우리의 근본이 무엇인지부터 재인식하고, 현재 우리와 상생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는 데서 출발하는 것이다.

첫째, 제주 세계지질공원 관리와 지질관광의 대원칙은 제주도가 세계적인 지형 및 지질다양성을 갖춘 화산섬이라는 점을 직접 느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점이다. 제주도 지질연구소장 강순석 박사는 “우리 지역에 적합한, 세계 어디에서도 찾아 볼 수 없는 독특한 제주만의 지질공원 프로그램이 요구된다”며 방문객들이 주변 풍광에 매료된 채 사진 몇 장 찍고 내려오면 그 뿐이 아닌, 화산섬을 몸으로 체험할 수 있어야 제주만의 지질공원으로 브랜드화 할 수 있다고 하였다. 적극 공감하는 바이다.

둘째, 제주 세계지질공원과 지질관광은 자연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활용방안을 찾아야 한다. 제주 섬은 세계 최초로 유네스코 자연환경분야 3관왕을 차지한 데서 알 수 있듯이 섬 전체가 인류 전체를 위해 보존해야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을 받았다. 따라서 관광객들이 대량으로 몰려왔다 물밀듯이 빠져나가는 식의 삼류 관광지로 전략해서는 안 된다.

이에 관한 수범사례가 제주 올레길이다. 지난 2007년 (사)제주올레가 출범한 이래 올레 길은 제주도 여행상품에서 빠져서는 안 될 정도로 기존의 여행패턴을 완전히 바꿔 놓았다. 올레 길이 지나가는 마을의 민박집과 식당매출도 늘었다. 마을주민들이 참여하는 축제도 열렸다. 관광객과 소통하는 마을단위 해녀공연도 열리고 있다. (사)제주올레길 측은 “제주의 바다와 오름, 돌담, 문화를 넉넉하게 품은 올레 길은 제주의 속살을 온 몸으로 체험하며 걷는 길이자, 평화의 치유의 길”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특히 올레 길은 대부분 제주 세계지질공원의 대표적인 명소들을 지난다. 올레 길과 지질명소와의 연결을 체계화하고 길동무화하면 세계지질공원 인증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세계지질공원을 제주의 역사와 문화를 겸비한 스토리텔링으로 본격 개발해야 한다. 모름지기 21세기 관광은 경관의 모습을 보게 하는 것에 그칠 게 아니고 경관의 이야기를 팔라고 하였다. 제주의 지형 및 지질경관 감상만이 아니라 지형과 지질에 얽힌 이야기를 팔아야 한다는 얘기다. 특히 장소 마케팅의 가장 좋은 방법으로 선진국들이 시도하는 것이 스토리텔링이다.

제주도는 1800여 신들의 고향이자 신화와 전설과 민속의 섬이다. 고고학적 사적지와 유적들도 적지 않다. 역사적으로 대표적인 유배지이기도 하다. 제주도민들의 통한을 간직한 제주 4·3은 아직도 진행 중이다. 일제 강점기의 생생한 흔적들이 곳곳에 널려 있다. 이런 역사적·문화적 자원은 단순한 일회성 관광 상품 대상이 아니다. 지역의 역사와 문화의 고유성을 가지며 지역주민과 지역발전에 있어 정체성의 근간이 되는 귀중한 유산이다. 다행스럽게 세계지질공원의 대표명소 대부분은 이런 요소들을 안고 있다. 결국 이들 자원을 어떻게 결합하고 재조명하는 지가 과제다. 바로 이런 점에서 스토리텔링 개발이 강조되는 이유다. 스토리텔링은 자연유산과 문화유산의 다양성을 보존하는 계기도 제공한다. 지역을 매력적으로 만들고 새로운 이미지 창출을 창출함으로써 관광객과 투자 유치, 나아가 주민소득 증대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이것이 지질공원이 추구하고자하는 이상이자 미래다.

마지막으로, 세계지질공원은 지역주민들의 친환경적인 삶이 생활화될 때 그 빛을 발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는 아주 기본적이면서 우리가 늘 간과하고 있는 문제이다. 제주도는 특별자치도로 출범하면서 자연공원법과 문화재보호법 등을 비롯해 제주도특별법, 제주도 환경보전관리계획, 중산간 관리보전지역 조례, 공유수면관리법, 한라산국립공원 관리계획 등 제주도의 자연유산을 관리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강력한 보전제도를 갖추고 있다. 그러나 생활환경은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 없으면 제주 섬의 자랑인 청정성을 유지할 수 없다. 따라서 주민들의 친환경적인 생활이야말로 세계지질공원만이 아니라 유네스코의 자연환경분야 3관왕이란 브랜드 가치를 한층 더 높이는 길이다. 더욱이 제주도는 환경교육시범도시로 지정되어 있다. 민과 관이 합동으로 이의 실천을 생활화하는 사회시스템 정착이 절실히 요구된다.

## VI. 맺으며

세계지질공원은 한 때의 정치적 치적이거나 국제적인 이벤트로 끝낼 프로그램이 결코 아니다.

제주도는 대한민국의 보물섬인 화산섬 제주가 세계지질공원 인증 1주년을 맞아 새롭게 거듭날 것임을 다짐하고 있다. 4년마다 실시되는 재점검에 철저히 대비하기 위해서도 환경보전과 활용방안의 극대화 전략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그런 점에서 세계자연유산관리단 생물권지질공원팀이 세계지질공원 인증 1주년 기념 이벤트로 10월 1일부터 15일까지 지질공원 국제 트레킹 및 체험행사를 마련한 것은 의미 있는 일로 받아들여진다.

세계지질공원의 대표적 명소인 수월봉을 중심으로, 고산 해안가 해녀 탈의장-검은 모래 해변-영알과 화산재-바람의 언덕 수월봉 정상(지질, 동식물, 수월이와 녹고의 전설, 고산 기상대 기후 등 설명)-수월봉 해안가 화산쇄설층과 화산탄-동굴진지-해변과 해양생물, 조류-자구내 포구-차귀도와 매바위(지질, 동식물, 해양, 역사)-당산봉-고산 선사유적지-용수리 포구(방사탑, 절부암, 우리나라 최초의 신부인 김대건 신부 표착지)-용수리 철새도래지-제주옹기마을 등을 직접 걸으며 체험케 하는 국제 트레일 지도까지 제작하였다.

여기에 문화관광해설사가 안내하는 투어 기획이 스토리텔링으로 업그레이드된다면 지역의 자연유산과 문화유산 보전의식이 제고되고, 지역주민들의 자긍심 또한 드높일 수 있을 것이다. 그럼으로써 이를 통해 주민소득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비단 수월봉 지역에만 해당되는 일이 아니다. 성산일출봉, 산방산과 용머리 해안, 천지연폭포와 서귀포층 등 제주 세계지질공원의 대표명소들은 지형 및 지질의 다양성만큼이나 그 지역의 역사와 문화의 다양성을 간직하고 있다.

결국 제주도정이 세계지질공원의 브랜드화를 이끌어내는 데 앞장을 서야 한다. 내년 9월이면 환경을리믹을 불리는 세계환경보전총회(WCO)가 제주 섬에서 열린다. 세계 180여 개국의 지도자와 환경단체, 전문가, NGO 등 모두 1만여 명이 제주를 찾는다. 본 연구의 정책적 제언들이 구체화되어 제주 섬의 진가가 WCO와 함께 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